

Style

조선일보

SPRING 2022



J O N S

J O N S



강렬한 레드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 75만9천원,
셋업 스커트 99만9천원,
스외루브스키 장식 스트랩 신들
가격 미정 모두 존스.



elegant glam

프리미엄 소재와 하이엔드 테일러링의
결합으로 진정한 타임리스 클래식을 선보이는
브랜드, 존스. 그 시작을 함께한 배우 강소라의
색다른 변신. photographed by hong jang hyun

진주 배버튼으로 포인트를 준
올타닉 스타일의 실크 스판
블라우스 가격 미정 존스.



캐주얼한 무드의 화이트 실크
티셔츠 55만9천원, 오버 와이드
실루엣으로 드라마틱한 글램 룩을
연출하는 실크 스판 팬츠
99만9천원 모두 존스.



부드러운 울 실크 소재의 옐로 베스트 1백39만원, 같은 소재의 셋업 팬츠 82만9천원, 니트 소재 이너 탱크 톱 39만9천원 모두 존스.

구조적이면서도 루스하고
편안한 실루엣과 착용감을
선사하는 울 실크 원피스
1백50만원, 화이트 리얼 파이론
가죽 물 69만원부터 모두 존스.



벌룬 소매의 슬터 실루엣이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재킷 1백50만원 존스.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321,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2257

헤어 **한지선**
메이크업 **안성희**



Timeless Classic

시대의 흐름이나 시즌에 국한되지 않고 오랫동안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유지해주는 패션 브랜드의 탄생. 프리미엄 소재와 하이엔드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여성복 브랜드 존스(JONS)를 소개한다.

뒤편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우아하고 멋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패션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이러한 패션을 지향하며 타임리스 클래식(Timeless Classic)이라는 테마로 론칭한 새로운 브랜드 존스(JONS)가 반가운 이유다. 존스는 타겟으로 연령으로 가리지 않는다. 유행을 타지 않는 럭셔리 브랜드의 클래식 라인과 같이 프리미엄 소재와 하이엔드 테일러링으로 변하지 않는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표방한다.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정구호의 남다른 감각이 담겼기에 더욱 그러하다. 시대를 읽는 탁월한 그만의 시선과 디자인적 감각이 존스 고유의 뉴 클래식을 탄생시켰다.

존스는 타임리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래 '클래식(Classic)', '모던(Modern)', '글램(Glam)', '프리미엄(Premium)', '데코레이션(Decoration)', 다섯 가지 라인으로 나뉜다. 존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클래식 라인은 시즌과 트렌드를 뛰어넘는 전통적 디자인을 추구하며, 패션 하우스에서 남성복을 지배해준 다양한 여성복을 탄생시킨 1950~60년대 패션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슈트와 셋업 스타일, 테일러링이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는 형태감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던 라인은 보다 세련되고 절제된 우아함이 돋보인다. 현대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가미한 라인이며, 시즌 트렌드를 잘 빠르게 반영하고 대담리한 매치가 가능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안하지만 럭셔리함 역시 놓치지 않았다. 글램 라인은 풍성한 드레이핑, 다양한 컬러 플레이와 화려한 패턴 등으로 극강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전한다. 과감한 실루엣과 럭셔리한 소재로 색다른 룩 연출을 돕는다. 프리미엄 라인은 소재와 디테일에서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소재는 주로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100% 실크와 이탈리아산 최고급 캐시미어를 사용했으며,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돋보일 수 있는 럭셔리함과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은 존스의 액세서리 라인이다. 볼드한 디자인이 특징인 주얼리를 비롯해 스카프, 백, 슈즈 등 존스의 의상과 매치하기 좋은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랙, 화이트 외에도 레



2



3



드, 핑크, 그린, 옐로 등 과감한 색을 사용해 룩에 포인트가 되어준다. 주얼리 제품은 스와로브스키 원석으로 장식해 화려함과 고급스러움까지 담았다. 존스의 이번 2022 S/S 시즌 컬렉션은 1950~60년대 미국의 휴양지에서 종종 파티를 즐기는 여유 넘치고 자유로운 여성에게서 영감받았다. 글래머러스하고 드러나한 리조트 룩이 돋보이며, 강렬한 컬러와 풍부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브랜드 뮤즈로 선정된 배우 강소라는 메인 화보에서 존스만의 우아한 무드와 럭셔리한 감성을 잘 표현했다. 컬렉션 제품은 3월 17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321,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2257 **에디터 성영민**

1 현대적 타격을 가미해 세련되고 절제된 우아함이 돋보이는 존스의 모던 라인의 의상과 액세서리 라인인 데코레이션 라인의 백을 착용한 모델 강소라. 2 바버도 레오나 스파니트 소재의 화이트 니트 셋업으로 편안함과 우아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존스의 대표 클래식 라인. 3 크로커다일 영로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스카프 소재의 레드 컬러 존스 토트백. 4 은은한 핑크 컬러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웨어러블하게 활용 가능한 존스 미니 들릴.

1



Perfect matching

존스(JONS)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호와 브랜드 탄생 배경이자 그의 뮤즈인 배우 강소라를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이의 경계뿐 아니라 클래식과 글램을 넘나드는 존스의 탄생 스토리가 더욱 흥미로워진다. photographed by **lee jong ho**

Style Chosun(이하 S) 출신 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게 바로 존스 화보였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강소라(이하 강)** 다시 활동할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바빴어요. 여러 작품도 검토하고 있었고. 또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정구호(이하 정)** 저는 브랜드 론칭 때문에 바쁘죠. 약 1년간 동시에 3개 브랜드를 준비하러니 저같은 베테랑도 힘들더라고요.

S 처음 론칭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요? **정** 특히 강소라 배우님은 소비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옷을 구매한 사람으로서요. **정** 정말 기대했어요. 오픈했을 때 사랑받음이 어떨지 궁금했죠. 사실 컬러가 비비드하고 색감이 워낙 강해서 다들 걱정하는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반응이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론칭 후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호응을 얻어서 기쁩니다. **강** 정 디렉터님 말씀처럼 사실 저도 걱정만 할 줄 알았어요. 화보 촬영 전 시안을 받았는데, 컬러감이 너무 강해서요. 전문 모델도 아닌 제가 이 컬러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됐죠. 그런데 막상 옷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코르셋처럼 몸을 너무 조이지 않아 포즈를 잡거나 움직이기 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화보를 더 잘 찍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S 두 분은 원래 언제는 사이인가요? **정** 소라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전시 할 때 자인이 소라와 함께 왔어요. 소라가 제 작품에 관심이 많고 하면서 소개해줬죠. **강** 제가 디렉터님 팬이라고 소개해줬다고 좋았어요. (웃음)

S 디렉터님이 개화한 수많은 전시 중 어떤 전시였나요? **강** 벌써 5~6년 전이라 어떤 전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데, 작품은 기억나요. 아르헨티아 백동으로 만든 작품이었어요. 보자마자 반했죠. 저는 클래식한데 예감이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큰 틀은 옛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현대적인 것을 한 번쯤 정도 섞은 듯한 느낌이랄까. 디렉터님 작품을 볼 때마다 옛것과 현대적인 것을 묘하게 잘 믹스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부끄럽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아마 이 부분에서 디렉터님 취향과 제 취향이 잘 맞는 거 같아요.

S 존스에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한데 세련된 멋이 있고 비비드한 컬러감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 기획할 때부터 브랜드 콘셉트를 강렬한 컬러로 잡았어요.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 사람들은 컬러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 컬러를 레드로 결정했을 때 자와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들조차 불안했죠. 하지만 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할 강렬한 무언가 혹은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레드 컬러 아이템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좋아요.

S 두 분의 친분으로 강소라 배우님이 존스의 모델이 되신 건가요? **정** 사실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실제로 소라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배우 강소라로서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강소라 모두 요즘 제가 타게팅하려는 세대와 딱 맞아떨어졌죠. 요즘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은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개성과 캐릭터가 확실해요.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소라를 모델로 선택한 건 탁월한 결정이었어요. 화보 촬영 전 마켓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것보다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사진 속에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낸 우아하고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성 있고 멋있는 여성이 있었죠.

S 처음에 강렬한 컬러가 부담스러웠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화보 촬영에 임하셨나요? **강** 디렉터님의 감을 믿었어요. 아트 작품은 물론 예전에 디렉터님이 연출한 공연도 많이 봤는데, 비비드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강렬한 컬러가 자칫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도전했었어요. 역시 디렉터님을 믿길 잘한 것 같아요. 평소 무채색을 주로 입는 저도 컬러에 도전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에 대한 제 편견을 확실히 깨게 되었습니다.

S 화보 촬영에서 배우님이 입은 옷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뭔가요? **강** 레드 컬러 드레스요. 입는 순간 몸 위에 가볍게 안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몸을 거주장스럽게 휘감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내려오는 느낌이랄까. 좋은 소재 덕분이었 같아요. **정** 맞아요. 소재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 드레스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실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S 강소라 배우님을 떠올리면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존스의 타겟 연령대는 30대 여성인가요? **정** 배우 강소라에게 영감을 받았지만 그녀의 나이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타겟 연령을 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브랜드가 좋아서 혹은 그 브랜드의 개성만 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젊어 보이는 옷이 아닌 그냥 멋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면 모두 저희 타겟이죠.

S 브랜드 라인이 다섯 가지인데, 동시에 다른 브랜드 론칭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라인을 디렉팅하기 힘들었을 거 같아요. **정** 브랜드 론칭부터 리브랜딩, 옷, 잡화 등 예전에 다 했던 게 다 생략했던 그렇게 많이 할 줄 없었어요. 존스는 기본 클래식 라인부터 좀 더 대담리한 느낌의 모던, 오프트렌드로 화려하게 만든 글램, 하이엔드 소재를 사용해 차별화한 프리미엄, 액세서리만 고이든 데코레이션 라인까지. 제가 그동안 해본 것들을 조금씩 나눠 넣은 여러 개의 의상이 같은 거라 할 수 있어요. 제 모든 경험과 일찌미기 노하우의 장수를 담아 만든 브랜드가 존스예요.

S 가장 애착이 가는 라인은 무엇인가요? **정** 글램 라인의 레드 드레스예요. 레드 강소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그중 글램 라인의 드레스들은 국내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존스 고유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수입 브랜드들에서는 오프트렌드 컬렉션을 따로 내놓죠. 존스도 그런 패션 하우스를 표방하고 싶었어요. 존스의 몇 라인을 테일러링 콘셉트로 잡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죠. 세미 오프트렌드, 예전 패션 하우스에서 하던 전통 테일러링 방식을 사용해 클래식한 재질을 만들어보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강** 사실 저는 글램 라인 드레스가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해요. 갤러리나 뮤지엄 오프닝, 자신 행사 등 드레스업하고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 갈 때도 유용해요. 코로나가 곧 열린 해외행트 링크에 몇 벌 꼭 챙겨가고 싶어요. 호텔이나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격식을 차려

야하는 장소에 입고 가기도 좋고요. 의외로 격식을 갖추야 하는 자리에 입고 갈 만한 옷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아요.

S 그럼에도 이런 강렬한 컬러의 옷과 과감한 디자인의 의상을 시도하기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나요? **강** 많이 물어보고 도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자신에게 맞는 컬러와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 일단 트라이해보는 게 중요해요. 입어보지 않으면 잘 어울리는지 모르니까요. 얼굴에서 먼 곳부터 컬러 아이템을 매치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신발부터 가방, 허리, 아우터, 상의 식으로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신나게도 서서히 받아들여져요. 제 옷방에도 검은색 옷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컬러풀하죠. (웃음) 사실 한국 여성들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개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컬러를 받아들이고 있죠. 컬러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요.

S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 존스의 F/W 컬렉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레드 패딩부터 피카치, 더답한 레드 컬러와 다양한 소재, 과감한 디자인의 의상을 선보일 거예요. 내년 S/S 컬렉션 또한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해외에서 전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창작품을 통해 많은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강** 저도 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캐릭터를 만나 존스의 의상을 작중하게 녹여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디터 성영민**



존스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정구호와 존스의 모델이자 브랜드 뮤즈 배우 강소라.

Time to Decorate

볼드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타임리스 클래식 룩에 정점을 찍을 존스의 데코레이션 액세서리.
photographed by hong jang hyun



크로커다일 엠보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가죽 소재의 토트백 2백19만원 존스.

리저드 엠보 디테일을 심린 화이트 컬러 소가죽 체인 미니백 79만9천원 존스.



다크 네이비 컬러에 골드 체인을 더해 럭셔리한 분위기를 풍기는 리저드 엠보 디테일의 소가죽 체인 미니백 79만9천원 존스.



리얼 리저드 소재를 사용해 맛스럽고 비바드한 컬러로 룩에 포인트를 주는 미들 힐 89만9천원 존스.



스위트브스카로 장식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볼드한 디자인이 룩에 포인트를 주는 네크리스 79만9천원 존스. 에디터 선정인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321,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2257



Find your style

시즌이나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타임리스 클래식을 테마로 삼는 브랜드, 존스, 프리미엄 소재와 하이엔드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여성복 브랜드를 표방하는 존스의 두 번째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photographed by jung tae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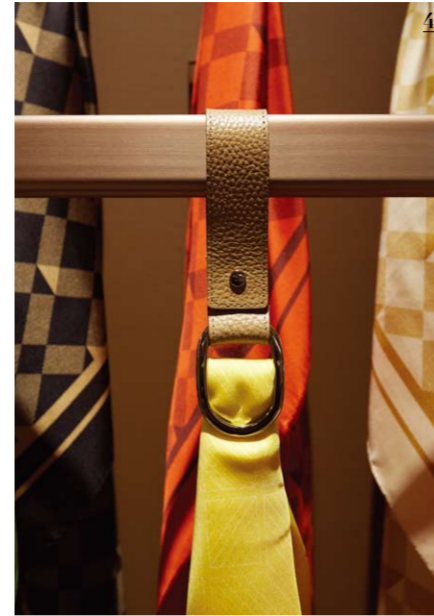
불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지난 3월 17일, 존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에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 이은 두 번째 매장이다. 매장에 들어서서 존스의 컬렉션을 보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타임리스 클래식을 콘셉트로 한 강렬한 컬러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우아한 실루엣은 프리미엄급 소재가 더욱 빛을 발하게 한다.

T.P.O에 맞게 옷을 입되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당당한 현대 여성상을 그대로 브랜드에 녹여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호의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패션 하우스의 테일러링을 기본으로 한 브랜드답게 매장 외관부터 뉴욕의 세련된 테일러링 스타일을 연상케 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을 끈다. 옷뿐만 아니라 스카프, 백, 슈즈와 주얼리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들 갖춰 고객들에게 존스만의 캐릭터를 제안한다. 여느 국내 브랜드들과는 다른 단단한 프리미엄 소재와 캐릭터, 수입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된 연령대를 넘나드는 모던함과 클래식함이 존스의 매력이다. '잘어 보이기 위해 입는 옷이 아닌 취향에 의해 선택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는 디렉터 정구호의 강한 신념과 철학은 매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클래식에 트렌드를 더한 존스만의 뉴 클래식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다. 직접 입어보아 진가를 아는 존스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존스 매장을 방문해보자.



STYLECHOSUN.COM | 02-793-5330 |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 11008 | 02-793-5330 | 02-793-5330



고급스러움의 극대화, 독보적인 감성의 완성
매장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면에 가죽 위빙과 마호가니나무를 입체적으로 활용했다. 들어서는 순간 마치 럭셔리한 타운하우스 혹은 부티크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이 든다. 고급스러운 라운지와 피팅 룸은 존스만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감성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특유의 타임리스 클래식 무드와 잘 어울린다. 매장 디스플레이는 라인이 아니라 다채로운 컬러로 구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컬러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픈 첫날임에도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존스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존스의 아이덴티티 컬러인 강렬한 버건디와 짙은 브라운은 매장에 무게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소파와 테이블 등 가구의 부드러운 곡선은 존스의 정제성을 대변하고, 매장에 들어서서 고유의 무드를 느끼고 존스의 옷을 걸치는 순간 브랜드가 창조한 페르소나를 덧입게 된다. 컬렉션은 물론 매장 인테리어에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든 세대가 한 번쯤 감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향한 정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고민이 녹아 있다. 존스가 밝어나갈 완성도 높은 브랜드로의 여정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321 | www.johns.com

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에 오픈한 타임리스 클래식 브랜드, 존스 매장. 2 취향에 따라 쇼핑할 수 있도록 구분한 존스의 라인업. 3 고급한 컬러가 돋보이는 존스 데코레이션 라인의 레드 컬러 백. 4, 7, 8 우아한 듯 힘을 뽐내는 존스의 데코레이션 라인의 골드 컬러 주얼리와 기본 컬러 외에 과감한 컬러까지 제안하는 스카프와 백. 5, 9 클래식부터 모던, 클래식, 프리미엄, 데코레이션까지 다채로운 컬러의 돋보이는 존스 매장. 6 존스의 모던 라인과 클래식 라인을 매치한 모습.





J O N S